

#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와 북경대 顧詒剛교수와의 관계\*

조 법 중\*\*

<目 次>	
I. 머 리 말	IV.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대한
II. 리지린 중국유학이전 북한학계 연구동향	顧詒剛의 평가와 대응
III. 리지린의 중국 유학 활동내용	V. 맺 음 말

[국문초록]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는 북한정권 수립후 진행된 40년대 말-50년대 후반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기반으로 북경대학 박사논문으로 통과된 저술이다. 북한학계는 중국 역사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顧詒剛교수의 지도를 받아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를 통과시킴으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중국학계가 동조하거나 적어도 용인하였음을 공인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하면 고조선 요동설의 논리를 체계화하고 학술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력사연구소 고중세사실에서 리지린의 중국유학을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리지린으로 대표되는 고조선 요동설이 중국 고대사분야의 대표적 존재인 고힐강교수의 지도를 받아 고조선의 역사공간이 중국 동북 3성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중국 북방지역의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음을 부각하는 리지린의 논문을 박사논문으로 통과시켜 북한의 고조선 요동설을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관련 당사국인 중국의 공인을 받아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정치적 결과도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리지린의 고조선관련 연구내용이 고힐강교수를 비롯한 중국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국제협력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리지린이 제기한 ‘광대한 고대 조선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리지린의 주장은 학문적 반론이나 문제제기가 유보된 채 1961년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63년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중 공동고고발굴이 중국의 협조하에 진행되어 문헌 및 고고학적으로 ‘광대한 고조선의 영역과 그 계승국인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 확인’되는 결과를 리지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같이 리지린의 연구활동과 후속된 고고학 발굴사업의 성과는 북한의 고조선연구뿐 만아니라 이후 고조선연구의 향배를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顧詒剛을 비롯한 중국학자들의 문제제기와 중소분쟁시 북한이 소련과 밀착되는 상황에서 점차 고조선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학계가 이에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 본 논문은 조법중, 「리지린 《고조선연구》의 학문적 계보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2014, 7월호(통권 88호)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우석대학교 교수.

[영문초록] Lee Ji Rin's 『Studies on the Gojoseon(古朝鮮)』 is the PhD thesis of Peking University which is to represent the Gojoseon located in Liao Tung. Lee Ji Rin's Advisor is Gu Jiegang(顧喆剛), who is famous professor of China ancient history. Gu Jiegang's most important observation was that historiography had tended to invent a pre-historical past that was prolonged by each progressing age. Also Gu Jiegang's historical research method is doubts about the historical records is very important for the creation of a modern type of historiography.

North Korea aim to affirm the theory of Gojoseon's territory is in China by this Lee Ji Rin's PhD thesis which the Advisor is Gu Jiegang(顧喆剛)

Lee Ji Rin's PhD thesis emphasized the Gojoseon(古朝鮮) was in Chinese territory. This was a politically sensitive issue. However, China has tolerated this in consideration of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lthough, Gu Jiegang(顧喆剛) had differences of opinion, but He became had a lot of ancient history, including the Gojoseon and korean ancient history. And it was increasingly embodied a different perspective.

Lee Ji Rin activity led to joi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China. Resul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projects has developed Gojoseon research to a new level, as well as research in the Korean ancient history. Since China's Academia began to a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Gojoseon research

[주제어] 리지린(Lee Ji Rin(李址麟)), 고조선(Gojoseon), 고조선 요동설(Gojoseon located in Liao Tung), 고조선연구(Studies on The Gojoseon), 북경대(Peking University), 고희강(Gu Jiegang(顧喆剛)), 조중공동고고발굴(Joi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with North Korea and China)

## I. 머 리 말

리지린의 『고조선연구』<sup>1)</sup>는 1960년대 북한학계 고조선연구의 상징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의 계보를 이은 연구 방향과 유물사적 역사해석의 방법론을 결합해 새로운 고조선인식체계를 제시한 성과로서 대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고조선 요동중심설의 완성형으로 제시되어 북한학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한국학계에 강한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도 관련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1)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2) 리지린 관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이기동, 「북한에서의 고조선연구」, 『한국사시민강좌』2, 1988, 일조각.

이광린, 「북한학계에서의 ‘고조선’연구」, 『역사학보』124, 1989.

이형구, 「리지린과 윤내현의 ‘고조선연구’ 비교」, 『역사학보』146, 1995.

조법중, 「리지린 <<고조선연구>>의 학문적 계보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2014, 7월

그런데 종래 리지린이 제시한 고조선관련 인식은 실학자이래 민족주의 사학자 및 북한학계에서 진행된 고조선관련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음이 지적되었다.<sup>3)</sup> 그러나 북한에서 진행된 고조선 연구의 학사적 정리와 그 계통적 이해는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중국내 리지린의 연구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는 5년간의 중국 北京大學 歷史學系 유학을 통해 이룩된 박사학위 논문이란 점에서 중국내에서 리지린의 연구활동 및 박사학위 취득과정 특히, 그의 지도교수인 중국 역사학계 擬古學派의 대표학자인 顧頡剛교수의 영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된다.<sup>4)</sup> 즉, 북한 역사학계 부교수신분으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5년간 중국유학을 진행한 리지린의 중국내 활동은 그동안 부각되거나 세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sup>5)</sup>

필자는 기존에 검토한 북한학계 고조선사 연구동향에 대한 소개<sup>6)</sup>와 함께 최근 리지린의 지도교수였던 顧頡剛교수의 관련 자료들<sup>7)</sup>이 출간됨에 따라 이들 자료를 조사하였고 일부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리지린의 행적과 고조선 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일단의 정리를 진행하고자 한다.<sup>8)</sup> 우선 『顧頡剛日記』 및 『顧頡剛讀書筆記』<sup>9)</sup>, 『顧頡剛書

호(통권 88호)

강인욱,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2015.

宋鎬最,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文化史學』 44, 2015.

3) 조법중,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4) 顧頡剛(1893-1980)은 1920년대부터 古史와 古籍에 대한 辨偽작업에 관심을 보여 소위 “層累地造成的古史說”을 통해 중국의 전통적인 古史체 계가 지닌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疑古의 분위기[古史辨運動]를 선도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의 고대 지리연구, 일제침략 이후 邊疆지리에 대한 관심, 민속학과 민간문학에의 관심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古籍의 역주와 點校작업 등을 통해 자신의 학문 적 세계를 부단히 확장하였다.

5) 최근 이와 관련된 다음 글들은 이 같은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다.

조법중, 「리지린 《고조선연구》의 학문적 계보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2014, 7월호 (통권 88호).

강인욱,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2015.

宋鎬最,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文化史學』 44, 2015,

6) 조법중, 「북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 『北韓의 古代史研究와 성과』 대륙연구소, 1994, ;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7) 顧頡剛, 『顧頡剛全集』 中華書局, 2010.

『顧頡剛全集』은 총 62권으로 『古史論文集』13책, 『民俗論文集』2책, 『讀書筆記』17책, 『書信集』5책, 『日記』12책, 『寶樹園文存』6책, 『清代著述考』5책, 『文庫古籍書目』2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讀書筆記』17책, 『日記』12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8) 조법중, 「리지린 <고조선연구>의 학문적 계보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2014, 7월호

信集』 등 최근 발간된 자료 가운데 리지린의 중국유학시절 顧頡剛교수와의 관계를 보여준 내용을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sup>10)</sup>

## Ⅱ. 리지린 중국유학이전 북한학계 연구동향<sup>11)</sup>

북한학계에서 고조선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논문은 1949년 7월 간행된 『歷史諸問題』 9호에 수록된 洪基文의 고조선 관련사료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이 논문의 내용은 중국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각 문헌이 보여주는 모습과 특성을 지적하여 이후 연구에서의 기본 지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문헌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면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一, 朝鮮古代史料로서 中國古代 文獻의 檢討의 意義와 그 基準
- 二, 先秦文獻에 있어서 朝鮮과 箕子傳說의 記錄
- 三, 史記와 漢書의 朝鮮傳
- 四, 朝鮮王滿의 衛姓
- 五, 箕子の 八條教
- 六, 漢以前 朝鮮의 事實로 記錄된 여러가지의 史料
- 七, 方言과 說文의 史料의 價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箕子東來說을 부정하고 있는 점과 정인보가 중국사료에 있어서 한사군관련 사료의 불일치와 혼란을 지적한 견해를 유지하여 동일한 연계선에서 비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sup>13)</sup> 고조선관련 중심적인 인식의 방향과 체계에 있어

---

(통권 88호).

필자의 정리 이후 같은 문제의식을 갖은 논문이 발표되어 참고된다.

강인옥,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국고발굴대 - 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韓國古代學會, 2015.

宋鎬趾,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文化史學』 44, 韓國文化史學會, 2015.

9) 『顧頡剛讀書筆記』 17冊, 中華書局出版, 2011.

10) 향후 내용을 보완해 리지린의 박사학위 이후 중국학계에서 진행한 고조선 대응 관련 연구 추이에 대한 논문도 준비하고자 한다.

11) 본 부분은 조범중, 1994, 전제논문; 2006,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12) 洪基文, 「朝鮮의 古代史料로서 漢魏以前 中國文獻의 檢討」, 『歷史諸問題』 9, 1949.

13) 鄭寅普, 『朝鮮史研究(上)』, 1946, p. p. 157~216. 정인보는 특히, 중국군현과의 관계를

서는 신채호의 역사인식이 중심골격으로 수용되었고<sup>14)</sup> 구체적인 사료 취급의 방법과 해석내용에 있어서는 정인보의 연구가 주로 참조되었다고 이해된다.

1950년 3월 정세호(鄭世鎬)는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일고찰 -문제의 제기로서-」,<sup>15)</sup>에서 중국측 문헌사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一. 古漢書에 나타난 穢(예)와 貊(맥)과 東夷와의 歷史上 面貌
- 二. 所謂 箕子朝鮮에 대하여
- 三. 衛滿朝鮮과 所謂 漢四郡以前 東夷의 中國과의 歷史的 關係
- 四. 衛滿朝鮮과 樂浪郡의 位置에 대한 檢討
- 五. 所謂 漢四郡에 대한 考察
- 六. 出土品으로 본 二 三의 見解

한편, 정세호는 상고 조선의 위치는 上谷으로부터 漁陽,右北平,遼西,遼東以東인 바 鴨綠江以西 지대에 소위 眞童莫,滿童汗,汶潘汗의 三汗이 있어 나중 馬韓,辰韓,弁韓의 三韓으로 轉譯되었으며 또 그 삼한의 위치도 고조선지역의 축소와 함께 반도 남방에 편재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였다. 특히, 溟水의 위치는 襄平에서 遼河이동에서 구하면 지금의 渾河 즉,小遼河가 그것이라고 보았다. 특히,王險城의 위치는 『胡三省說』에 ‘황수(요수)는 한 험독현에 있다.(黃水(遼水)當在漢險瀆縣)’이란 기록이 있는 바 險瀆은 應昭의 설과 같이 滿이 도읍한 왕험성으로서 혼하 입구 부근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또 瀺는 중국의 東海之內 北海之隅에 위치한 동이조선의 일족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950년 4월 발표된 정현의 「漢四郡考」,<sup>16)</sup>에서는 위씨조선과 한사군은 압록강 이남 지역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패수’에 대한 기왕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鴨綠江說은 丁若鎔이 주장했으나 상황에 맞지 않고 大洞江說은 驪道元이 주장했으나 古平壤과 今平壤을 구분치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이며 淸川江說은 李丙燾가 주장했는데 바 이는 韓百謙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역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sup>17)</sup> 또한 신채호가 平壤,溟水,樂浪등이 ‘폐라’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패수가

‘漢四郡役’이란 표현으로 나타내어 한사군의 존재시기가 실제로는 중국세력과 우리민족이 계속적인 교전상태를 유지하였음을 강조하는 인식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4) 申采浩, 『朝鮮上古史』, 1931.; 『단재 신채호전집』 1, 1971.

신채호의 고조선인식은 위치문제에 있어 ‘遼東說’의 대표적인 바 滿藩汗을 지금의 요동지역 海城,蓋平부근으로 보고 溟水를 軒牟樂으로 이해하는 구체적인 역사지리 고증을 실행하여 후속하는 연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남겼다.

15) 鄭世鎬, 古朝鮮의 位置에 대한 一考察 -問題의 提起로서-, 『歷史諸問題』, 1950, 3호(통권 16호).

16) 鄭玄, 「漢四郡考」, 『歷史諸問題』, 1950, 3호(통권 17호).

海城지역의 軒芋樂이라고 지적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고찰방법이었으나 遼河부근이 과거에는 內海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정현은 『漢書』 地理志, 『遼史』 地理志, 『大明一統志』, 『山海經』 등의 사료를 검토해 볼 때 淇水는 遼陽地域이 漢 淇水縣이므로 遼水 즉, 지금의 渾河가 패수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씨조선의 영역은 遼河이동 渾河이남 鴨綠江이서 遼東半島 북부지구이며 한사군의 위치도 이 지역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견해는 신채호설을 일부 계승하면서 1948-1950년 시점에 문헌고증 등을 통해 상당히 체계적인 고조선요동중심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정세호는 1956년 앞서 그가 발표한 논문의 연계선상에서 보다 심화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즉, 『史記』 朝鮮列傳, 蘇秦列傳, 夏禹本紀등을 근거로 고조선의 西界가 碣石山임을 지적하고, 匈奴列傳에 나타난 秦開의 고조선침략에 의해 서기전 108년경에는 濊貊朝鮮의 종족이 大凌河沿岸 및 襄平以東地域에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논증을 바탕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왕의 고조선 평양중심설에 대한 비판을 기술하고 있다.

“.....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儒敎徒들이 大統一觀念과 事大思想과 攘夷尊周의 력사관점과 왜곡된 사료에 근거한 맹종자들과 그 왜곡된 사료를 악용한 日帝御用學者들은 史記 朝鮮列傳에 나타난 衛滿朝鮮의 지역도 漢武帝의 漢四郡地域도 모두 지금의 朝鮮半島안으로 국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sup>19)</sup>

또한, 淇水를 大凌河로 이해하고 遼水명칭의 변동을 지적하면서 고대의 遼수는 樂河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청나라 洪吉亮이 補撰한 『十六國疆域志』에 진나라때에 大凌河 하안인 昌黎郡 大棘城縣에서 鐵築頭 천여개가 출토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이 지역이 바로 鋼鐵을 생산한 곳을 나타내는 ‘鑊方縣’ 지역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정세호는 다음과 같은 고조선 영역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첫째, 燕나라 昭王시기이전(서기전 323-서기전 281)은 上谷, 樂河중심--동해안 鴨綠江까지의 지역.

둘째, 秦開침략에 의한 西邊 1,2千里 상실후(서기전 281-서기전 202)에는 上谷를 상실하고 襄平이동부터 鴨綠江에 이르는 지역.

셋째, 秦나라가 燕나라를 멸하고 난후 漢나라가 일어나던 시기(서기전 202-서기

17) 정현, 앞의 글, 1950, p. 3~6,

18) 정세호, <자료> 「사기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력사과학』, 1956, 2호.

19) 정세호, 앞의 글, 1956, p. 61.

전 194)는 大凌河이동에서 부터 西部朝鮮지역.

넷째, 서기전 194년 衛滿朝鮮이 고조선의 서계인 大凌河부터 鴨綠江이서 지역을 침략하여 古朝鮮은 鴨綠江以東地域에 국한되고 漢武帝가 서기전 108년에 위만조선지역을 략취하여 그곳에 漢4郡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이후 전개되는 고조선관련 논쟁에서 제시되는 주용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고조선 요동중심설이 근거로 활용되는 『史記』등의 자료분석과 정치상황변화에 따른 영역변화 인식은 고조선의 영역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결론에서 제시한 위만조선과 고조선의 구별인식은 이후 김석형에 의해 보다 강화되어 위만조선이 성립된 시기에 ‘衛滿朝鮮’과 ‘準王의 朝鮮’이 병존하고 있다는 견해로서 정착된다. 이 같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구별인식은 이후 평양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인식체계로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세호의 이같은 연구성과는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의 1956년도 연구방향에서 제시된 고대사분야의 논제로서 제시되어 있었다.<sup>20)</sup>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1)</sup>

1. 사기를 중심한 고대조선의 역사지리.
2. 기자동래설에 대한 비판.
3. 조선고대사 시대구분.
4. 조선에서 노예제도는 과연 있었는가.
5. 조선에서 봉건제성립에 관한 연구.
6. 광개토왕 비문고증에 대하여.

따라서 정세호의 연구 결과는 당시 역사연구소의 공동연구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미 1956년경에 북한의 과학원 산하의 역사연구관련 기관인 역사연구소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가운데 역사연구소는 이미 고조선에 관한 기본입장이 요동중심설로서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요동설위주의 고조선관련 연구분위기는 당시 진행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아 상당수 연구자들의 퇴진과 교체 및 평양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조선 중심지문제 등에 대한 견해가 평양설과 요동설로 나뉘어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북한 내부에서 진행된 수차례의 정치적 숙청 가운데 고조선 연구자와 관련된 사건

20) 『학계소식』, 『역사과학』, 1957. 2호

21) 『학계소식』, 『역사과학』, 1957. 2호

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8월 전원회의)에서 발생한 연안과중심의 반김일성노선의 주장으로 최창익,윤공흠등이 구금되면서 표면화된 갈등으로 비롯된 정치숙청이었다.<sup>22)</sup> 이같은 사건에 대한 당시 역사학계의 입장은 력사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력사과학』에서 언급된 1956년 8월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성격을 논급한 기록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8월 전원회의’는 박헌영,리승엽도당으로서 최창익<sup>23)</sup> 을 중심한 박창옥,리청원<sup>24)</sup> ,김정도,허갑등을 반당 반혁명분자로 규정하는 회의였으며 이들이 역사학계에 끼친 영향극복을 강조하는 김석형등의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어 이 사건이 특히 역사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5)</sup>

이 사건은 1958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의에서 「8월 종파 쿠데타사건」,으로 종결되어 연안파와 소련파 중진의 대거 숙청이 단행되었으며 특히, 이 종파의 두목으로 김두봉이 지목되어 축출되었다.<sup>26)</sup> 이 사건은 내부적으로는 김두봉 등과 연결된 많은 연구자들도 함께 축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고조선 요동설을 주장한 미술사학자인 리여성에 대해서는 그의 연구업적에 대해 혹독한 비판이 가해져 이같은 추론을 구체화 시켜준다. 특히, 이 시기이후 북한학계에서 고조선 요동설에 입각한 논지를 전개하였던 정세호,정현,김무삼 등의 논문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사실<sup>27)</sup>에서 이들이 김두봉의 정치적 숙청 및 그와 관련된 리여성의 숙청이후 그들과의 연계성 때문에 모두 축출되거나 소외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종래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자들 가운데 이들이 모두 고조선

2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45-1980)』, 1980, pp. 163~164.

23) 崔昌益의 경우 「朝鮮民族 解放運動에 對한 史的 考察」, 『歷史諸問題』 6, 1949. 등의 역사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다.

24) 이청원의 경우 이미 일제시대부터 활발한 역사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는 바 『朝鮮社會史讀本』, 1937. 등이 있으며 이후 북한에서도 「김일성장군 빨지산 투쟁의 역사적 의의」, 『력사제문제』 2, 1948.2 ; 「20세기초 조선의 대외관계와 국내 정형」, 『력사제문제』 4, 1948. 12. 31.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5) 김석형, 「위대한 강령적 문헌들을 길이 연구하자」, 『력사과학』, 1958. 1호.  
 <권두언>, 「우리력사학계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8. 2호.  
 김후선, 「반당 종파분자들의 반맑스주의적 사상의 반동성과 해독성」, 『력사과학』, 1958. 3호.  
 김석형, 「우리당 과학정책의 정당성과 력사학계의 임무 -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1958. 4호

26) 公山靚문제연구소, 『북한대사전』, 1979, pp. 286~287.

27) 유일하게 김무삼의 경우에만 1965년 『고고민속』 2호에 「자료: 벼루」라는 간단한 역사유물을 설명하는 글 한편만을 보여준 이후 전혀 논문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발표한 김무삼의 연구논문은 앞서의 「조선금석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 『력사제문제』 10, 1949.8.25.; 「조선서예사연구서설」, 『력사제문제』 13, 1949.11.15.과 「조선주자사적에 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58년 2호, 『문화유산』 1958.3호의 학계소식에서 소개된 김무삼연구사의 「호태왕비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요동중심설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북한학계에서 진행되었던 고조선연구의 분위기가 이같은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기왕에 존재하였던 고조선 평양중심설에 대한 심정적, 학문적 동의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해방이후 일본식민사학의 청산이란 분위기 속에서 반동시되었던 상황이 이 같은 주장을 하던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정치적인 숙청을 통해 제거되자 유보하고 있던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957년 중국유학을 진행한 리지린은 이 시기까지 사회과학원 고대사 및 중세사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리지린의 중국유학기간동안 북한에서는 고조선중심지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학술논쟁이 진행되었다.<sup>28)</sup>

### Ⅲ. 리지린의 중국 유학 활동내용

리지린은 1957년 중국에 유학해 북경대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sup>29)</sup> 리지린의 당시 신분에 대해 顧頡剛은 ‘조선대학 역사계 부교수’로 표현하고 있다.<sup>30)</sup> 이후 1958년 3월 북경대 역사계 박사과정에 입학한 리지린은 고대조선사 및 조중양국의 고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북경대학에 진학하였음을 밝혔다. 처음 顧頡剛교수가 지도교수가 된 이유에 대해 역사지리에 밝다는 점을 고려해 북경대 역사학과에서 위촉한 것으로 되어있다.<sup>31)</sup> 그러나 顧頡剛은 자신이 동북민족사에 대해 깊이 알지못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열심히 대응하려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2)</sup> 주목되는 것은 이때 이미 궈선연구에 대한 기본 목차를 제시하였던 점이다. 즉, 리지린은 이미 고조선연구를 위한 기본 목차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다. 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28) 이 부분은 다음 참조 조범중, 「북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 『北韓의 古代史研究와 성과』 대륙연구소, 1994. ;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29) 顧頡剛, 「古朝鮮研究之審査報告」, 『顧頡剛讀書筆記』 8(上), 1961, p. 5865  
리지린의 중국내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2장 참조  
강인욱,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2015.

30) 『顧頡剛年譜』 1958. 3.

31) 『顧頡剛日記』 1958. 3.27.

32) 『顧頡剛年譜』 1958. 3.

33) 顧頡剛, 「李址麟, 古朝鮮研究提綱」, 『顧頡剛讀書筆記』, 7卷 下, 1958, p. 5517

序論: 研究目的, 研究方法, 研究的意義

第一章: 古朝鮮歷史地理

第一節: 中國文獻上古朝鮮位置

第二節: 中國文獻史料上古朝鮮領域的變動

第三節: 秦至漢初遼水, 渭水的位置

第四節: 王險城的位置

第二章: 古朝鮮建國傳說考

第二部: 檀君傳說考

第二節: 箕子傳說考

第三章: 古代先秦朝鮮諸族考

第一節: 穢貊考

穢貊是不是一銅種族? 穢貊族的歷史地理

穢貊與古朝鮮的關係穢貊與中國的關係

社會發展程途

第二節: 肅慎考

先秦文獻上肅慎是不是挹婁的祖先?

肅慎的歷史地理肅慎與中國的關係

肅慎的社會發展程度

第三節: 夫餘考

夫餘是何族? 夫餘與古朝鮮的關係

夫餘國家形成時期

第四節: 三韓考

韓族是何族? 三韓與古朝鮮的關係

三韓國家形成時期

第五節: 沃沮考

沃沮是何族? 沃沮與古朝鮮的關係

沃沮的歷史地理

第四章: 古朝鮮與中國的關係

第一節: 政治、經濟上關係

文獻上、考古材料上的關係

先秦時代古朝鮮人民與中國人民的關係

第二節: 文化上關係

古朝鮮獨自性文化

中國文化對於古朝鮮文化的影響

第五章: 古朝鮮社會經濟構成

第一節: 考古材料上社會生產力的發展程度

第二節: 古朝鮮社會經濟形態

第三節：國家形成時期

結論

從來內、外學者關於古朝鮮的研究態度及對它的批判

古朝鮮人民獨自性的文化創造

朝鮮人民與先秦中國人民的血緣上及文化上友好關係

이미 이 같은 목차를 제시한 이후 리지린과 顧頡剛 교수와의 관계는 日記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박사과정 초기 리지린은 顧頡剛교수를 찾아 東夷史料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東夷文化에 대해 물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9년 12월에는 리지린을 위한 시험문제를 내기 위해 『史記』朝鮮傳을 강독하고 東夷傳 史料를 검토하여 구술시험문제를 준비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구술시험에는 당시 북경대 역사계 교수인 翦伯贊, 朱一良, 張政烺, 鄧廣銘, 曹紹孔 등 교수가 참석하였다. 당일 시험에서 리지린은 민족자존심을 바탕으로 朝鮮四郡 즉 漢四郡이 중국 동북지역에 있으며 溟水를 遼水로 해석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翦伯贊교수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학은 반드시 實事求是의 方法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때 顧頡剛은 조선유학생임을 감안해 東夷傳 관련 사료를 자세히 강독케 하여 일단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된다.<sup>34)</sup>

당시 기록을 감안하면 리지린이 피력한 고조선관련 입장은 북한학계의 고조선 요동 중심설적 입장을 바탕으로 이후 『古朝鮮研究』에 수록될 내용을 표방한 것으로 이해되는 데 북경대 역사계 교수들은 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顧頡剛은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구술시험이후 1960년부터 리지린은 수시로 顧頡剛 교수를 방문해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논문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4월 가장 먼저 「中國文獻上古朝鮮位置」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고 <sup>35)</sup> 顧頡剛교수는 이 논문에 대한 지도 및 수정을 진행토록 하여 10월 中國文獻上古朝鮮領域的變動에 대한 改修작업을 진행하였고 2월에 해당하는 논문도 제출하여 논문지도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또한 顧頡剛 年譜에서도 확인되는 데 1960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리지린을 위하여 『古朝鮮研究』 논문을 개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sup>36)</sup>

1961년 1월에는 리지린의 박사논문 초고가 제출되어 顧頡剛교수에 의한 본격적인 논문검토가 진행되었다. 1월이후 진행된 顧頡剛교수의 리지린 지도상황을 보면 王險城等問題에 대한 논의와 함께 檀君傳說考, 箕子朝鮮傳說考, 秦~漢初遼河和溟水的位置 등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목차내용의 전반부 장절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때 개

34) 『顧頡剛日記』 1959. 12.9.

35) 『顧頡剛日記』 1960. 4.16.

36) 『顧頡剛年譜』 1960. 4-10.

별 논문으로 제출되어 3월까지 顧詰剛교수에 의한 지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논문은 顧詰剛교수에 의해 2-3독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검토되고 논문에 대한 지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4월부터는 고조선연구 중 후반 부분에 대한 논문이 제출되어 논문지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古朝鮮研究』 후반부에 해당하는 4편의 논문인 穢貉考, 三韓考, 夫餘考, 根據考古資料所看到的朝中古代關係 등 논문이 제출되었고 古朝鮮의國家形成及其社會經濟形態, 肅慎考, 沃沮考, 先秦時代朝中關係 등의 논문이 제출되어 6월 중순까지 계속 검토되었다.

결국 顧詰剛은 이 같은 리지린의 『古朝鮮研究』를 지도한 후 1961년 6월 29일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9월 29일 북경대학에서 리지린에 대한 考試答辯을 청취하고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논문은 통과되었다. 顧詰剛은 10월 7일 『古朝鮮研究』序를 작성해 10월8일 전달하였고 다음 날인 10월 9일 리지린은 북한으로 귀국하였다.

#### IV.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대한 顧詰剛의 평가와 대응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대한 중국학계의 입장은 앞서 박사과정 구술시험시 북경대학교수인 翦伯贊의 우려에 나타났듯이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앞세운 입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그리고 지도교수인 顧詰剛교수가 1961년 6월 29일 작성한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박사학위 논문심사보고서(2800자)에 이 같은 입장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문 심사보고는 리지린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고 대학 당국에 보고한 내용으로 顧詰剛교수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심사보고서는 논문 내용 소개와 평가 및 문제점 지적으로 구성되어있다.<sup>37)</sup> 먼저 고대조선족이 현재 중국 영토에 광대하게 존재했었고 중심공간이 요서-요동일대임을 강조한 박사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논문에 대해 현존자료의 100분의 95를 파악하고 고조선사 및 고대 조중관계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이룩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문장이 매우 번다하고 중첩되어 견해파악이 곤란해 설득력을 떨어트린다.

둘째, 자의적이고 건강부회적 역사해석을 진행하였다.

즉, 濊, 貊을 古朝鮮族으로 확정짓고 『逸周書』王會解에 나오는 北方의 良夷, 揚州, 解, 兪, 靑丘등의 나라를 모두 古朝鮮人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韓으로 표현된

37) 顧頡剛, 「古朝鮮研究之審查報告(1961.6.29.)」, 『顧頡剛讀書筆記』 8, 1979, p. 5865

존재를 朝鮮族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들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古朝鮮族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특히, 리지린 동지의 논리대로라면 濊貊의 東遷前에 中國 東北地方과 韓半島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된다.

셋째,客觀的 研究를 표방하였으나 民族主義的 束縛에 사로잡혀있다.

箕氏朝鮮에 대해 箕子와 그 후예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箕를 王을 의미하는 조선어 ‘검’과 관련되었다고 하고 衛滿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燕에 동화된 古朝鮮人이라고 한 점 및 檀君神話에 대한 입장 등이 문제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박사 지도교수로서 리지린 논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행해진 구체적 지적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顧詰剛교수가 지적한 둘째, 셋째 문제점은 리지린 논문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런데 顧詰剛 교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귀국후 북한에서 간행된 『고조선연구』의 내용에서 지적사항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리지린이 제시한 목차내용과 실제 간행된 고조선연구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를 잘 보여준다.<sup>38)</sup>

리지린 박사논문 목차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간행본 목차
序論: 研究目的, 研究方法, 研究的意義	머리말
第一章: 古朝鮮歷史地理 第一節: 中國文獻上古朝鮮位置 第二節: 中國文獻史料上古朝鮮領域的變動 第三節: 秦至漢初遼水, 溟水的位置 第四節: 王險城的位置	제1장 고조선의 력사 지리 제1절 고대 문헌 자료상에서 본 고조선의 위치 제2절 고대 문헌상에서 본 고조선 령역의 이동 제3절 기원전 2세기말까지의 료수의 위치 제4절 고조선의 패수의 위치에 대하여 제5절 왕검성의 위치에 대하여
第二章: 古朝鮮建國傳說考 第一節: 檀君傳說考 第二節: 箕子傳說考	제2장 고조선 건국 전설 비판 제1절 단군 신화 비판 제2절 기자 조선 전설 비판
第三章: 古代先秦朝鮮諸族考 第一節: 穢貊考 穢貊是不是一個種族? 穢貊族的歷史地理 穢貊與古朝鮮的關係穢貊與中國的關係 社會發展程途 第二節: 肅慎考 先秦文獻上肅慎是不是挹婁的祖先?	제3장 예족과 맥족에 대한 고찰 제1절 예족과 맥족에 대하여 제2절 예,맥과 고조선과의 관계 제3절 삼국지와후한서의예전과옥저전에 기록된예의위치에 대하여

38) 강인옥,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顧詰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韓國古代學會, 2015, pp. 42~43.

<p>肅慎의歷史地理肅慎與中國的關係 肅慎的社會發展程度 第三節：夫餘考 夫餘是何族？夫餘與古朝鮮的關係 夫餘國家形成時期 第四節：三韓考 韓族是何族？三韓與古朝鮮的關係 三韓國家形成時期 第五節：沃沮考 沃沮是何族？沃沮與古朝鮮的關係 沃沮의歷史地理 第四章：古朝鮮與中國的關係 第一節：政治、經濟上關係 文獻上、考古材料上的關係 先秦時代古朝鮮人民與中國人民的關係 第二節：文化上關係 古朝鮮獨自性文化 中國文化對於古朝鮮文化的影響 第五章：古朝鮮社會經濟構成 第一節：考古材料上社會生產力的發展程度 第二節：古朝鮮社會經濟形態 第三節：國家形成時期 結論 從來內、外學者關於古朝鮮的研究態度及對它的批判 古朝鮮人民獨自性的文化創造 朝鮮人民與先秦中國人民的血緣上及文化上友好關係</p>	<p>제4절 맥국의 사회 경제 구성 제4장 숙신에 대한 고찰 제1절 고대 숙신의 위치 제2절 고대 숙신과 고조선과의 관계 제5장 부여에 대한 고찰 제1절 부여는 어느 종족의 국가인가? 제2절 부여와 고조선과의 관계 제3절 부여의 사회 경제 구성 제6장 진국(삼한)에 대한 고찰 제 1절 삼한 동천설에 대한 비판 제2절 진국의 북변 제3절 삼한인은 어느 종족인가 제4절 진국의 사회 경제구성 제7장 옥저에 대한 고찰 제1절 옥저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제2절 옥저의 위치에 대하여 제3절 옥저인은 어느 종족인가 제8장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본 고대 조선 문화의 분포 제1절 석기 유물의 분포 제2절 토기 유물의 분포 제3절 거석문화의 분포 제4절 청동기 유물의 분포 제9장 고조선의 국가 형성과 그 사회 경제 구성 제1절 고조선 사회의 생산력 제2절 고조선의 문화 제3절 고조선의 국가 형성 제4절 고조선의 사회 경제 구성 맺는말</p>
--	--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 리지린 논문이 큰 수정없이 통과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심사 보고서 제출후 9월 29일에 진행된 리지린 박사논문 최종심사에서 북경대 周一良교수가 顧頡剛교수에게 최종 논문심사시 국제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논문 내용 중 결점사항에 대해 비평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한 사실에서 확인된다.<sup>39)</sup> 특히, 리지린이 귀국하면 조선과학원 고조선사연구실주임으로 내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이 같은 정치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박사학위가 통과되었고 리지린은 북한으로 귀국하기에 앞서 顧頡剛교수를 방

39) 『顧頡剛日記』 1961.9.29.

문해 기념선물 전달 및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연구』에 대한 서문을 부탁해 顧喆剛교수는 귀국일인 1961년 10월 9일 3000자에 달하는 序文을 작성해 주었다.<sup>40)</sup> 이 서문의 내용은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논문심사보고서 내용이 2800여자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이 생략되고 대신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많은 노력이 경주된 역작임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서문과 顧喆剛교수의 지도받은 유일한 북한학자라는 점은 북한학계에서 리지린의 입지와 역량을 극대화시켰다고 파악된다.

한편, 리지린은 북한 귀국후 고조선관련 마지막 토론회에 참여하였고 이후 북한의 고조선 요동중심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63년 네팔과의 친선우호협력단의 단장으로 1달간 네팔에 파견되었고 뒤이어 1963년 8월부터 1965년 7월까지 4창에 걸쳐 진행된 조중고고합동발굴단의 실질적 책임을 맡아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과 관련된 유적조사 및 발굴을 진행하며 북한과 중국과의 학술교류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리지린의 논저목록을 보면 리지린의 첫 논문은 광개토왕비관련 논문<sup>41)</sup>으로서 그가 처음 관심을 두었던 분야는 고구려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2)</sup>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의 1956년도 연구방향에서 제시된 고대사분야 연구주제 가운데 중요사항인 ‘고조선의 역사지리문제’ 등에 대한 집중연구를 위해 리지린을 중국에 유학시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인식되고 있던 顧喆剛교수의 지도하에 고조선관련 학위를 취득케 하여 중국 동북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확인된다. 즉, 북한학계의 입장을 중국학계에 피력하고 고조선 역사공간이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존재하였음을 공인받고자 하는 북한 역사학계의 목적이 리지린 북경대 유학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파악된다. 중국학계는 이 같은 목적성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으나 리지린의 논문계획 목차 및 구술시험과정 등에서 이를 확인하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구술시험과정에서 翦伯贊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양국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묵인된 것으로 파악된다.<sup>43)</sup>

40) 顧喆剛의 서문은 『顧喆剛日記』 1961.10.7.자에 리지린에게 제공하였음이 언급되어 있지만 『고조선연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顧喆剛年譜』에서는 미간행으로 표시되어 있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41) 리지린, 「광개토왕비 발견의 경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9년 5호

42) 이는 후에 그가 강인숙과의 공저인 『고구려사연구』를 1976년 출간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한편, 강인숙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일련의 고조선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양자의 학문적 연계성도 추측된다.

강인숙, 「연나라 룡동군의 위치」, 『력사과학』 1985. 2호.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력사과학』 1987. 3호.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력사과학』 1987. 4호.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1)」, 『력사과학』 1988. 3호.

이같은 목적은 이후 김일성, 주은래의 조중우호협력조약 체결이후 1963-65년 조중공동고고발굴대의 활동으로 이어져 리지린등 북한의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즉, 1961년 7월 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 체결되고 1963년 4월 金日成주석과 周恩來수상이 만주지역 고고유적에 대한 '朝中共同發掘' 이 합의되었다.<sup>44)</sup> 1963년 8월 중국학자들과 공동으로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를 조직하여 1965년 7월까지 만주 일대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유적을 공동으로 4차에 걸쳐 발굴하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역사연구소와 김일성종합대학 성원등을 포함해 2개조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리지린은 김석형이 단장으로 있는 1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요동반도의 고조선시기 무덤인 강상무덤과 루상무덤에 대한 발굴과 길림성 동경성지역의 발해 상경용천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박시형, 김석형, 주영현, 채회국 등이 참가하였다. 이때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1963. 8. 23~10. 23, 2개월)

참가 인원 : 북한·중국 각각 17명(2개조로 나누어 편성)

답사 지점 : 3개 성, 1개 자치구의 23개 시

답사 내용 : 10개 사이트 발굴, 7개 박물관과 관련 기관 참관

1조 답사지역 : 내몽골자치구의 적봉, 영성, 요령성의 심양, 요양, 해성, 개평, 무순, 여대, 금현, 금주, 금서, 조양, 객좌에서 주거지 23 곳, 고구려 성터를 비롯한 성터 9 곳, 고인돌 3 곳, 청동단검 출토지와 옛 무덤 12 곳, 모두 47 곳. 그 가운데 영성현 남산근, 무순시 돌상자무덤, 요양현 양갑산과 여대시 윤가촌 남하와 후목성역 무덤을 시굴하였다.

2조 답사지역 : 요령성 환인, 길림성 집안, 길림, 돈화, 연길, 화룡, 훈춘, 흑룡강성 영안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 2 곳, 고구려, 발해, 요, 금의 성터 12 곳, 고구려 무덤 11 곳, 모두 25 곳을 답사하였다. 그 가운데 집안현 역전 유저과 돈화현의 유정산, 화룡현의 북대, 연안현의 대주둔, 발해 무덤의 일부를 시굴하였다.

43) 『顧頡剛日記』 1959. 12.9.

44) 북한과 중국의 합동고고발굴조사는 1962년에서 1963년 봄 조선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인 최용건이 주은래총리에게 여러번 공동발굴조사를 요구한 것이 수용되어 진행되었다.

최용건의 제안은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와 수정주의 및 반동파들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소민족, 소국가라고 멸시하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가 없다고 멸시하여 국제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고고발굴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고조선의 발원지를 찾고자 한다. 라며 요구하였다. 주은래는 고조선 발원지에 대해 숫자세는 범등을 근거로 복건성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공동발굴을 승인하였다.

韓東育, 「東亞研究的問題點與新思考」, 『社會科學戰線』, 2011, 3期, 67.



(2) 2단계(1964. 5. 10~7. 23, 2개월 13일)

참가 인원 : 북한·중국 각각 17명(2개조로 나누어 편성)

1조 발굴지역 : 요령성 여대시 후목성역의 강상, 누상, 쌍타자, 금현 양갑점의 서구, 동가구, 용천 등 5 곳 유적 발굴. 그 가운데 누상, 소소구 와룡천의 발굴은 마무리하고 강상과 쌍타자 유적은 끝내지 못함.

2조 발굴지역 : 길림성 돈화현 육정산의 발해 무덤끼와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의 발해 상결 용천부 터를 발굴하였다. 육정산 무덤끼 발굴 마무리, 상경 용천부 터 발굴 첫 단계 시작.

(3) 3단계(1964. 8. 20~10. 20, 2개월)

참가 인원 : 북한·중국 각각 17명(2개조로 나누어 편성)

1조 발굴지역 : 강상, 쌍타자 유적 발굴 계속, 윤가촌 남하와 장군산 유적 새로 발굴

2조 발굴지역 : 발해 상경 용천부 터를 계속 발굴하여 마침.

(4) 4단계(1965. 5. 23~7. 19, 1개월 25일)

참가 인원 : 북한·중국 각각 11명

발굴지역 : 요령성 심양시 정가와자 유적을 발굴하고 보고서 초고의 편집을 마쳤다.<sup>45)</sup>

북한과 중국은 공동발굴대 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북한은 압록강 북쪽의 역사 유적에 대한 답사와 발굴이라는 성과에다 발굴한 많은 유물을 직접 북한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시기 리지린은 공동학술발굴단의 책임을 맡아 중국사회과학원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이때마다 顧詒剛교수를 다시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리지린을 필두로 한 북한학계의 문헌 및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한 고조선영역 확인 작업에 대해 顧詒剛교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내용은 顧詒剛서신 가운데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역사가들이 고조선족이 본래 중국북방 및 동북지역에 거주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중국 고대제왕들의 조선침략에 반대하는 것과 연결지어 조선의 자존심을 높이고 실지회복을 기도하려 한다. 리지린동지는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북경대에 와서 5년동안 이 방면의 사료를 수집하고 고조선연구를 작성하였다. 귀국후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금년(1963년)중조고고협정에 근거해 조선사회과학원의 동지들과 우리나라(중국) 동북의 大連, 寧安등지에서 유적을 발굴해 이 같은 목적을 증명하는 지하유물을 찾고자 한다.”

45) 韓東育, 「東亞研究의問題點與新思考」, 『社會科學戰線』, 2011, 3期, p. 67~68

이 내용은 1964년도 기록에서 재차 확인되는 데 조선역사가들이 자존심을 구사해 실지회복 목적으로 고조선족이 중국동북지역에 존재하였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지린은 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 중 한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6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동북지역 고고발굴은 이 같은 북한의 목적 이루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중국당국이 이들의 활동을 방치하고 특히, 중국고고학자들이 한명도 현장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sup>46)</sup> 이후 중국당국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사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리지린의 고조선사 연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진행하였고, 중조관계사료수집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학계의 대응속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북한에서 간행된 리지린의 『고조선연구』(63.2.28.) 및 1959년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고조선관련 토론회 결과인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63.8.30.)<sup>47)</sup>을 함께 번역해 내부자료로서 활용하였다.<sup>48)</sup>

즉,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는 총 3가지로 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3. 2.28. p. 410

일본: 리지린, 『고조선연구』, 학우서방, 동경, 1964.5.20.(번인발행) p. 410

중국: 李址麟, 『古朝鮮研究』, 油印本, 16切, 1965.3.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內部參考資料

李址麟, 『關於古朝鮮的問題』, 油印本, 16切, 1965.3.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內部參考資料

중국이 간행한 것은 정식 출판본이 아닌 油印本으로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 맨 앞에 위치한 논문은

46) 『顧頡剛日記』, 1964.8.13.

47) 리지린, 김석형, 황철산, 정찬영, 이상호, 립건상,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8. 30.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리지린, 고조선의 위치에 대하여

김석형, 고조선의 연혁과 그 중심지들에 대하여

황철산, 고조선의 위치와 종족에 대하여

정찬영, 고조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이상호, 단군고

립건상, 고조선 위치에 대한 고찰

48) 리지린저작의 중국사회과학원에서의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關於古朝鮮的几种油印本和顧頡剛先生的一封信』, 2007.3.2. 이 자료에 의하면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는 확실히 번역되었다. 다만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이 『關於古朝鮮的問題』인지는 확인치 못하였지만 당시 정황과 제목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리지린의 「고조선의 위치에 대하여」로서 이는 앞서 2월달에 간행된 『고조선연구』의 1장 부분을 일부 축약하여 수록한 것으로 내용은 차이가 없다.

이같이 중국은 북한의 민족자존심을 앞세운 적극적인 고조선연구 및 조중공동고고 발굴조사<sup>49)</sup> 등을 통해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적 명분에 입각한 영토문제 제기를 우려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추진하였다. 특히, 1965년 관련저술들의 번역과 함께 조선사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이 모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顧詒剛교수의 기록을 보면 1967년 중소분쟁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더 이상 북한과 교류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아쉬워하였으며 북중관계 악화에 따른 역사쟁점문제의 대립도 지속화 되었다고 파악된다.

顧詒剛교수는 앞서 리지린의 지도교수로 위촉될 때 본인이 동북지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음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리지린의 지도교수로서 박사논문 지도 과정에서 리지린에 의해 고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대사에 대한 사료를 접하며 리지린이 제기한 고조선의영역 등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되었다. 관련내용은 리지린 지도 과정인 1960년대 초반 기록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 이 시기 『顧頴剛讀書筆記』 내용을 보면 고조선, 예, 맥, 고구려, 부여, 낙랑 등 상당히 여러 부분에 걸쳐 顧詒剛의 입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관련 제목을 정리하고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별고에서 논하고자 한다.

일단 『顧頴剛讀書筆記』에 나타난 고조선 등 한국고대사관련 논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管子書中之發興朝鮮,  
管子書中之四夷名產,發國在今吉林境內-輝發國疑即因發得名,  
山海經與史記中之朝鮮-列水疑即今遼水,  
遼水, 疑即今大凌河,  
後漢遼東屬國之縣多在今遼水之西  
高句麗爲朝鮮王右渠地  
遼東半島之營丘城  
孤竹與令支  
遼河爲古句驪河

49) 1963년 4월 金日成주석과 周恩來수상이 만주지역 고고유적에 대한 '朝中共同發掘' 이 합의  
조중 공동고고학 발굴  
시기: 1963.8.23.-1965.7.19.(4차)  
대상: 만주 일대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유적 공동 발굴

眞番在朝鮮南, 非番汗  
漢人稱朝鮮, 高麗爲胡  
樂浪郡遂城爲秦長城所起, 遂城亦有碣石  
帶方與鏤方, 樂浪郡部分在遼東境  
前漢與後漢玄菟郡之異  
秦始皇四至, 遼東在北, 朝鮮在東  
彭吳穿濊, 朝鮮 置滄海郡 史記誤字 後漢書說不可通  
碣石爲渤海中所常見  
朝鮮爲東胡中之一國  
朝鮮侯自稱爲王 欲尊周室  
東明故事與后稷 穆王 宋高宗相類  
夫餘馬韓人用珠  
夫餘 高句麗 濊 馬韓人祭天之期  
東北之弱水與黑水  
夫餘以六畜名官足證小倭以鳥名官  
夫餘與高句麗之婚俗  
朝鮮濕水與濕餘水 洌水卽無列水 汕水卽龍鮮水  
丁若鏞朝鮮考  
秦開所破之東胡卽朝鮮  
燕與朝鮮洌水  
長城與燕障塞  
秦長城東端三說  
不 發 皆朝鮮語都邑  
漢置四郡後之遼水卽列水  
沮水數說 漢與朝鮮國境之沮水卽白狼水  
沛水與沮水  
王險城與險瀆  
昌黎與夫黎  
箕子與朝鮮  
桓因與檀君  
鳥夷與卵生神話  
檀君神話非濊族居河北時所有  
檀君與朱蒙

이들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顧詒剛교수 스스로 확인하고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단군문제, 기자조선 문제와 함께 고조선 거점인 왕함성문제 및 패수문제가 주요 내용이며 진장성 동단의 위치문제 낙랑, 현도, 대방의 위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sup>50)</sup> 특히, 1970년대말 이후 본격화된 중국학계의 대응 내용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 검토를 통해 논의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V. 맺 음 말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는 북한정권 수립후 진행된 40년대 말-50년대 후반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기반으로 북경대학 박사논문으로 통과된 저술이다. 북한학계는 중국 역사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顧詒剛교수의 지도를 받아 리지린의 『고조선연구』를 통과시킴으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중국학계가 동조하거나 적어도 용인하였음을 공인받기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북한의 초기 요동설 주장자인 홍명희를 비롯한 정현, 정세호등의 입장의 일정하게 리지린과 연결된다는 점이 유의된다. 그러나 이들은 1958년 연안과 숙청이란 정치적 급변상황에서 사라지고 평양중심설이 다시 부상하는 등 1959-1961년 사이에 고조선 중심지 논쟁이 새롭게 점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요동설을 주도한 역사연구소는 새로운 연구자가 필요하였고 이를 대표한 존재가 리지린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조선 요동설의 논리를 체계화하고 학술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역사연구소 고증세사실에서 리지린의 중국유학을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리지린으로 대표되는 고조선 요동설이 중국 고대사분야의 대표적 존재인 顧詒剛교수의 지도를 받아 고조선의 역사공간이 중국 동북 3성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중국 북방지역의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음을 부각하는 리지린의 논문을 박사논문으로 통과시켜 북한의 고조선 요동설을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관련 당사국인 중국의 공인을 받아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정치적 결과도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리지린의 고조선관련 연구내용이 顧詒剛교수를 비롯한 중국 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북한과 중국간의 국제협력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리지린이 제기한 ‘광대한 고대 조선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리지린의 주장은 학문적 반론이나 문제제기가 유보된 채 1961년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63년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중공동고고발굴이 중국의 협조하에 진행되어 문헌 및 고고학적으로 ‘광대한 고조선의 영역과 그 계승국인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 확인’되는 결과를 리지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같이 리지린의

50) 조범중, 「中國學界의 東北古民族 및 古朝鮮研究動向과 問題點」,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조범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5, 2006.

연구활동과 후속된 고고학 발굴사업의 성과는 북한의 고조선연구뿐 만아니라 이후 고조선연구의 향배를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顧詰剛을 비롯한 중국학자들의 문제제기와 중소분쟁시 북한이 소련과 밀착되는 상황에서 점차 고조선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학계가 이에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먼저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등 관련논저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검토되는 등 일정한 대응이 진행되었고 이후 중국학계는 북한학계에 의해 부정된 箕子朝鮮問題를 중점적으로 연구, 부각하여 ‘中國의 立場의 古朝鮮認識’을 체계화하여 북한의 고조선연구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된다.<sup>51)</sup>

[논문투고일 : 8월 3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17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8일]

---

51) 조법중, 「中國學界의 東北古民族 및 古朝鮮研究動向과 問題點」,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조법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5, 2006.

이동훈,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동향과 문제점」, 『史叢』 66, 2008.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중국학계의 韓國上古史 인식-古朝鮮史, 夫餘史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9, 2008.

기수연, 「중국학계의 고조선, 한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단군학연구』 23, 2010.

※ 이지린 관련 참고문헌

1. 『顧詒剛日記』에 나타난 李址麟 관련 사항표

3.24.		遼河和淇水的位置	논문 2독, 관련자료 정리
3.25.		遼河和淇水的位置 王險城位置	논문 2독
3.27.		秦~漢初遼河和淇水的位置	논문 3독
3.29.		王險城位置 箕子朝鮮傳說考	논문3독
3.30.-31		檀君傳說考	논문2독
4.1.		리지린논문 4편 우편도착	
4.2.			寫李址麟信
4.7.	리지린방문		오찬
4.12.	리지린	同來罕德蘇倫	
5.10.-11		穢貉考	논문1독 오자교정
5.12.-13		三韓考	논문1독
5.13.		夫餘考	논문1독
5.15.	리지린방문	夫餘考	논문1독, 중조고대관계 논의
5.17.		根據考古資料所看到的朝 中古代關係	논문1독
5.31.	리지린	同來罕德蘇倫, 長談	
6.2.		穢貉考 古朝鮮的國家形成及其社 會經濟形態	논문2독 논문검토
6.5.		穢貉考 肅慎考	논문2독 논문검토
6.6.		夫餘考	논문2독
6.7.	리지린방문	同來罕德蘇倫 遊故宮 三韓考	논문2독
6.15.		三韓考 沃沮考	논문검토
6.19.		先秦時代朝中關係	논문검토
6.20.	리지린방문	結論, 序言	내용검토
6.28.			리지린논문검토 자료정리, 평가문 준비
6.29.		古朝鮮研究 학위논문	논문심사보고 내용작성 (2800자)
6.30.			리지린논문보고 초록작성 리지린 기념선물 증정
8.10.	리지린방문	長談	

	8.18.			리지린논문 심사보고 筆記기록
	9.2.		조선노동당중앙 인삼선물 리지린논문 도움감사	
	9.23.	리지린방문	삼국사기,삼국유사 선물	

	9.29.	리지린고시 변론회 저녁만찬	북경대:전백찬,주일량,등광 명,전여경,하자강 조선:리지린, 김석춘,이성봉	보고 ※ 주일량 논문심사 형식 적상황 보고회언급 -리지린 조선과학원고조 선사연구실주임 내정언급 -국제우호관계고려 내용 결점 무비평요구
	10.3.	리지린방문	顧詰剛교수에 대한 북한학 계 인식전언	기념 관련서적 증정 산해경관련서적 및 해동 금석원등
	10.6.			리지린논문서문작성-미필
	10.8.			리지린 고조선연구 서문 작성완료(3000자),謄文
	10.9.	환송 리지린		
	12.24.			리지린 서신사본작성
1962	11.11			리지린 조선초정약속 미 이행상황 기술
	2.9	리지린방문		
	2.10	리지린방문	리지린 朝鮮-尼泊爾(네팔)우 호방문단단장 1개월 파견	여름 조선초청약속
1963	6.15		리지린 중국과학원요청 중 국방문	
	6.23	리지린방문	리지린중조우호합작사업차 방문	
	6.27			訪리지린
	12.22		리지린연하장 발송	
1964	7.22	리지린방문	조선과학원고고소 金基雄,李 濟善 내방	
	8.13		조선역사가들이 자존심을 구사해 실시회복 목적으로 고 조선족이 중국동북지역에 존재하였을 강조함.	



			리지린은 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중 한명 동북지역고고발굴은 이같은 목적 이루기 위한것
	12.27		조선사문제 논의 리지린고조선사 대응진행 중조관계사료수집 등
1967	12.29		북한 소련관계로 중국과 연락두절 상황 아쉬워함
1969	4.20		리지린 관련 사실 정리

## 2. 리지린 논저 간행사항

### <저술>

#### 1. 『고조선연구』

- 북한: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평양, 1963. 2.28. p. 410
- 일본: 리지린, 『고조선연구』, 학우서방,동경, 1964.5.20.(번인발행)
- 중국: 李址麟, 『古朝鮮研究』, 油印本, 16切, 1965.3.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內部參考資料

#### 2.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 리지린, 김석형, 황철산, 정찬영, 이상호, 립건상,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8. 30.
- 리지린, 고조선의 위치에 대하여
- 김석형, 고조선의 연혁과 그 중심지들에 대하여
- 황철산, 고조선의 위치와 종족에 대하여
- 정찬영, 고조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 이상호, 단군고
- 립건상, 고조선 위치에 대한 고찰
- 李址麟等, 『關於古朝鮮的問題』,油印本, 16切, 1965.3.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內部參考資料

- 리지린·강인숙, 『고구려사연구』, 1976.

<논문>

- 리지린, 「자료:광개토왕비 발견의 경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9-5.
- 리지린, 「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상)-한자사용의 시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0-2.
- 리지린, 「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하)-한자 사용의 시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0-4.
- 리지린, 「고조선과 3한 사람들의 해상활동」, 『력사과학』, 1962-1.
- 리지린, 「신라(3국시대)인의 해상활동과 수순 개관」, 『력사과학』, 1962-3.
- 리지린, 「수필:전개와 위만」, 『력사과학』, 1962-5.
- 리지린, 「토론:진한(秦漢)대의 료동군의 위치」, 『력사과학』, 1963-1.
- 리지린, 「수필:창해군(滄海郡)과 창해군(倉海君)」, 『력사과학』, 1963-3.
- 리지린, 「수필:고구려의 서변」, 『력사과학』, 1964-3.
- 리지린·리상호, 「『한국사』를 평함--고대를 중심으로」, 『력사과학』, 1965-5.
- 리지린, 「『삼국사기』를 통해 본 고조선의 위치」, 『력사과학』, 1966-3.
- 리지린, 「『삼국사기』와 『제왕운기』를 통해 본 고조선의 위치」, 『력사과학』, 1966-5.
- 리지린, 「고구려의 령주제」, 『력사과학』, 1967-5.
- 리지린, 『사대주의는 구사회적유물』, 근로자』1967-2 조선로동당당간.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저서

- 申采浩, 『朝鮮上古史』, 1931.; 『단재 신채호전집』 1, 1971.
-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1946.
- 리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 조법중,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대사전』, 1979.
-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45-1980)』, 1980.
- 『顧頡剛全集』 62권, 中華書局, 2010.
- 『顧頡剛年譜』
- 『顧頡剛日記』
- 『顧頡剛讀書筆記』 17冊, 中華書局出版, 2011.

#### 2. 논문류

- 洪基文, 「朝鮮의 古代史料로서 漢魏以前 中國文獻의 檢討」, 『歷史諸問題』 9, 1949.
- 김무삼, 「조선금석에 대한 일제어용학설의 검토」, 『력사제문제』 10, 1949.8.25.
- 김무삼, 「조선서예사연구서설」, 『력사제문제』 13, 1949.11.15.
- 鄭世鎬, 「古朝鮮의 位置에 대한 一考察 -問題의 提起로서-」, 『歷史諸問題』 1950년 3호(통권 16호).
- 鄭 玄, 「漢四郡考」, 『歷史諸問題』 1950년 3호(통권 17호).
- 정세호, <자료> 「사기를 중심한 고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력사과학』 1956년 2호.
- 김석형, 「위대한 강령적 문헌들을 같이 연구하자」, 『력사과학』 1958. 1호.
- 김석형, <권두언>, 「우리력사학계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8.2호
- 김석형, 「우리당 과학정책의 정당성과 력사학계의 임무 -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력사과학』 1958. 4호.
- 김무삼, 「조선 주자사적에 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58년 2호
- 김무삼, 학계소식 「호태왕비에 대한 연구」, 『문화유산』 1958년 3호
- 顧頡剛, 「李址麟, 古朝鮮研究提綱」, 『顧頡剛讀書筆記』, 7卷 下, 1958.
- 顧頡剛, 「古朝鮮研究之審查報告」, 『顧頡剛讀書筆記』 8(上), 1961.

- 리지린, 김석형, 황철산, 정찬영, 이상호, 림건상, 『고조선에 관한 토론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 김무삼, 「자료: 벼루」, 『고고민속』 1965년 2호
- 顧頡剛, 「古朝鮮研究之審査報告(1961.6.29.)」, 『顧頡剛讀書筆記』 8, 1979.
- 강인숙, 「연나라 료동군의 위치」, 『력사과학』 1985. 2호.
-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력사과학』 1987. 3호
-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력사과학』 1987. 4호.
-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1)」, 『력사과학』 1988. 3호.
- 이기동, 「북한에서의 고조선연구」, 『한국사시민강좌』2, 일조각, 1988.
- 이광린, 「북한학계에서의 ‘고조선’연구」, 『역사학보』124, 1989.
- 조법중, 「북한 학계의 고조선 연구」, 『北韓의 古代史研究와 성과』 대륙연구소, 1994. ; 『고조선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006.
- 이형구, 「리지린과 윤내현의 ‘고조선연구’ 비교」, 『역사학보』146, 1995.
- 조법중, 「中國學界의 東北古民族 및 古朝鮮研究動向과 問題點」, 『韓國古代史研究』 33, 2004.
- 조법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검토-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25, 2006.
- 이동훈,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동향과 문제점」, 『史叢』 66, 2008.
-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중국학계의 韓國上古史 인식-古朝鮮史, 夫餘史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9, 2008.
- 기수연, 「중국학계의 고조선, 한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단군학연구』23, 2010.
- 韓東育, 「東亞研究의 問題點與新思考」, 『社會科學戰線』 2011年 3期, 2011.
- 조법중, 「리지린 <<고조선연구>>의 학문적 계보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7월 호(통권 88호), 2014.
- 강인옥,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 - 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45, 2015.
- 宋鎬趾,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文化史學』 44, 2015.